

수피아여고 이해란 ‘삼성생명 유니폼’ 입었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스피드·돌파 등 두루 호평

“배혜운·김정은 닮고 싶어”

수피아여고 이해란(18·182.6cm)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삼성생명 블루밍스 유니폼을 입었다.

삼성생명은 8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2021-2022 신인 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이해란을 영입했다.

수피아여고 졸업 예정인 센터 이해란은 2021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국가대표 예비명단에 포함됐고, 지난달 헝가리에서 열린 FIBA 19세 이하(U-19) 월드컵에도 출전해 활약한 바 있다.

신장이 큰 편임에도 스피드와 돌파 등이 두루 좋다는 평가를 받는 기대주다.

원래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정규리그 5, 6위 팀이 이번 선발회의 1~2순위 지명권을 두고 추첨하게 돼 있었지만, 삼성생명은 비시즌 단행된 트레이드를 통해 1순위 지명권을 확보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6위 부산

BNK에 김한별을 내주는 대신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고, 5위 부천 하나원큐와는 구슬과 강유립을 맞교환하면서 1라운드 지명권도 먼저 나오는 순번을 갖기로 해 순위 추첨 전부터 1순위가 확정된 상태였다.

예정된 1순위 지명권으로 삼성생명은 이번 없이 ‘최대어’로 꼽힌 이해란을 지명했다.

이해란은 삼성생명에 지명된 뒤 “호명될 때 무척 떨렸다”며 “큰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즌 1군에 데뷔할 자신이 있다”면서 “살을 찌우고 웨이트와 힘을 늘려서 밀리지 않게 준비하겠다. 개인 연습으로 드리블과 슛 감각 등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프로 선배 중 짝은 ‘롤 모델’은 배혜운과 김정은이다.

이해란은 “안쪽과 외곽에서 모두 플레이하는 게 저와도 맞다고 생각한다. 멋진 플레이를 본받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

전날 순위 추첨 행사에서 예정된 1순위를 확정하고 이날 선발회를 시작하자마자 무대 위로 올라가 망설임 없이 이해란의 이름을 부른 임근배 삼성생명 감독도 “뽕고 싶은 선수를 뽑아서 기분이 좋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해란은 고교 시절엔 센터로 활약했으나 임

감독은 이해란을 전천후 포워드 자원으로 키우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임 감독은 “이해란은 운동 능력이 좋아 조금만 가르치면 충분히 올라온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마인드도 좋다고 애기를 들었다”면서 “우리은행의 박지현·최이섬을 합해 놓은 스타일로 방향을 잡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란이 아직은 멀리서 슛을 던질 때는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외곽 슛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적응 과정을 봐야겠지만, 이번 정규 시즌 중에는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하나원큐는 U-19 대표 출신 분당경영고 가드 박소희(18·177.2cm)를 낙점했고, 인천 신한은행은 3순위 지명권으로 분당경영고 포워드 변소정(18·179.6cm)을 뽑았다.

박소희는 프로농구 선수 출신 아버지(박상옥 씨), 성균관대 소속 선수로 뛰는 오빠(박종하)를 둔 ‘농구인 가족’의 일원이며, 변소정도 아버지가 변정은 전 배재고 코치다.

청주 KB는 전체 4순위로 선일여고 가드 신예영(171.7cm)을 선발했고, 5순위 지명권을 가진 아산 우리은행은 동주여고 센터 방보람



수피아여고 이해란(오른쪽)이 8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여자농구연맹 2021-2022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삼성생명 블루밍스의 지명을 받았다. /삼성생명 블루밍스 홈페이지

(18·183cm)의 이름을 불렀다.

1라운드 6순위 지명권도 보유한 삼성생명은 청주여고 센터 임규리(18·183.3cm)를 뽑았다. 임규리는 남자 프로농구 서울 SK에서 뛰는 포워드 임현택(24)의 동생이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는 24명이 참가해 12명이 프로팀의 선택을 받아 50%의 지명 확률을 기록했다. 27명의 참가자 중 51.8%에 해당하는 14명이 지명됐던 지난 시즌보다 선발률이 다소 떨어졌다. /연합뉴스

지역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 쟁점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선정

6년간 연구비 20억원 확보

조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됐다.

8일 조선대에 따르면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 연구소를 특성화·전문화된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선순환적 학술·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김민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하는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스포츠

산업 기반 지역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모델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지역 스포츠 이벤트 ▲지역 스포츠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해양레저 스포츠관광 활성화 등이며, 학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모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신규과제 43개 연구 중 유일한 예체능 연구소로 선정됐다.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6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연구는 전략적 지역, 순수학문, 문제 해결, 교육 연계 4가지 유형 중 ‘순수학문’ 연구과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술 연구 진흥 기여와 국가·사회적 주제에 대한 중장



김민철

있는 실용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조선대가 유일한 예체능 지원 연구소로서 경쟁력 있는 지역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 국가·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목포시청 여자하키 전국체전 산뜻한 출발

인천시체육회 2-1 제압 8강 진출

목포시청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여자일반부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목포시청은 8일 대구 안심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사전경기 하키 여자일반부 1회전 경기에서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둬 8강에 진출했다.

전국체전은 다음달 8일 개막되지만 하키 남녀일반부 경기는 10월에 아시아 챔피언스컵 대회와 있어 사전경기로 치러지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평택시청과 공동우승을 차지한 강팀이다. 당시 목포시청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는 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체전이 열리지 못했다.

목포시청은 송해림이 선취특점에 성공하며 1-0으로 앞서다 인천시체육회에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최진선이 득점하며 2-1로 앞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목포시청은 9일 오후 3시 대구과학대와 8강전을 치른 뒤 11일 경북체육회-제주국체대 승자와 준결승을 갖는다.

한편,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에서 다음달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 종목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 하키와 배드민턴만 국제대회 일정이 겹쳐 사전경기로 진행된다. /최진화 기자

A매치 일정 마친 벤투호 해산…내달 4일 재소집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1~2차전을 치른 벤투호 태극전사들이 소집 일정을 마무리하고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대한축구협회는 관계자는 8일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전날 레바논과 최종예선 2차전 경기를 끝내고 나서 현장에서 모두 소집해제됐다”라며 “대표팀은 월드컵 최종예선 3~4차전에 대비해 10월 4일 재소집된다”고 밝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최종예선 1~2차전을 위해 지난달 30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돼 2일 이라크(0-0무)와 7일 레바논(1-0승)을 상대로 2연전을 펼쳤다.

1승 1무의 성적으로 9월 A매치 일정을 마

친 태극전사들은 7일 레바논전이 치러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모두 해산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황의조(보르도), 손준호(산둥 타이산), 남태희(알두하일), 이재성(마인츠), 주세종(감바 오사카),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문환(LA FC), 김민재(페네르바체), 김승규(가시와 레이솔) 등 대부분 해외파 선수들은 이날 소속팀으로 돌아간다.

벤투호는 10월에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 시리아 홈경기(7일)와 4차전 이란 원정(12일)에 나선다. 이란과 4차전은 최종예선 첫 원정이다. 이를 위해 벤투호는 10월 4일 파주NFC에서 다시 모여 담금질에 나선다.

/연합뉴스

류현진 첫 다승왕 보인다

경쟁 양키스 게릿 콜 부상



류현진

났기 때문이다.

콜은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5피안타(1홈런) 2볼넷 2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기록한 뒤 4회 투구 도중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양키스 구단은 “콜은 왼쪽 햄스트링 긴장 증세로 교체됐다”고 전했다.

콜의 부상 상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부상 회복 상황에 따라 다승왕 경쟁이 요동칠 수 있다.

일단 류현진은 AL 다승 공동 선두 기회를 잡았다. 7일 양키스전에서 승리를 추가하면서 13승 8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 중이다.

AL 다승 1위 콜은 이날 경기 전까지 14승 6패 평균자책점 2.73의 성적을 거뒀는데, 류현진이 다음 선발 등판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면 다승 공동 선두가 된다. AL 다승 경쟁은 류현진과 콜의 2파전 양상이다.

류현진이 MLB에서 다승왕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박상현의 드라이버 티샷

8일 인천 청라 베어즈베스트청라 CC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제37회 신한동해오픈’ 연습라운드 2번 홀에서 박상현이 드라이버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